

울산 '화요시민법회' 큰 호응

7쌍부부 불이회 주최 동참인원 늘어 도심포교장 자리매김

6월 4일, 울산 태화동 중부신림 2층 문화회관을 찾은 이들은 화성선원 조실 우룡스님의 법문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이날 열린 한국-폴란드 전 월드컵 축구 열기를 무색케 한 이 불심의 환경은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시민법회로 인근 주민이나 직장인에게 인기가 높다.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되는 이 법회를 주최하는 모임은 불이회(不二會, 회장 서종기·60, 14명, 그것도 모두 부부인 불이회의 회원들은 매주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모여 시민들을 위한 법회 준비에 한마음 한뜻이 된다. 일체의 법회 경비는 물론 당일 법회장 청소, 의자 배치, 마이크 설치, 안내까지 고차 14명뿐인 회원들이 도맡고 있다.

3월 5일 첫 법회를 연 후 넉 달째 맞은 화요시민법회는 이제 70~80여 명이 참석하는 도심 법회로 자리를 잡았다. 우룡스님, 북경대학 철학박사 윌엄스님, 승가대학원장 지인스님 등의 법문이 초심자들에게 호응



▷불이회는 4일 울산 화성선원 조실 우룡스님을 법사로 초빙해 법회를 열었다.

을 얻고 있는데다 법회를 한번 찾은 이들의 입소문으로 동참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가계 운영 때문에 먼 절에는 갈 엄두를 못냈다는 안미선(45, 경주시)씨는 "가까운 곳에서 시민법회가 열리니 빠짐없이 참석하게 되었다"며 "불이회에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법문해(49)보살과 문외자(41)씨도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쉬운 가르침으로 일주일을 맑게 정화시켜주는 소중한 법회"라며 일주일 내내 법회를 기다리게 된다고 했다.

이러한 반응은 '내가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는 고민 풀

에 시민법회를 열게 된 불이회로서는 더할 수 없는 보람이고 기쁨이다.

정진에도 포교에도 척척 뜻이 맞는 일곱 쌍의 부부, 이들이 열고 있는 법회를 인연으로 불법의 가르침을 접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시민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2년 전 '내 가족부터 화합해서 공부하자'며 매월 첫째주 토요일마다 철야 정진을 이어오던 불이회가 이제 울산 불교토로 만드는 심부름꾼을 자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울산불교신도회장을 지낸 서희정장과 화성선원 신도회장을 역임한 박용구 거사를 비롯해 회원들의 바램은 이제 하나다. "울산에서 시작된 시민법회가 전국으로 확산돼 부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것."

그들의 서원과 보살행으로 일궈진 화요시민법회는 이제 불이회의 또 다른 정진의 장이자 포교, 보시의 장이며 시민들에게는 불법의 깊은 가르침을 접하는 법석이 되고 있다.

울산=천미희 기자

단체통합...지리산생명연대 출범

상임대표 도법스님, 공동위원장 양재성목사·서주원씨

지리산땀 백지화 운동과 생명명화 운동 등 지리산 살리기 운동을 벌여 온 '지리산 살리기 국민행동'과 '지리산을 사랑하는 열린 연대'가 통합됐다.

두 단체는 5월25일 남원 실상사에서 통합창립총회를 열고 '지리산생명연대'를 출범시켰다. 이날 총회에서 두 단체 관계자들은 상임대표에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을 추대하는 한편, 공동운영위원장에는 양재성 목

사(지리산을 사랑하는 열린 연대 사무총장)와 서주원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를 각각 선임했다.

이에 따라 '지리산생명연대'는 각각의 사업을 통합해 지리산 살리기 운동의 전국적 확산과 지역공동체 환경보호 운동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지리산생명연대는 지리산을 중심

으로 지역과 종교, 이념을 초월한 대안운동을 전개하는 등 전국적 환경운동단체로 자리매김해나갈 방침이다.

임효정 지리산 생명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이번 두 단체간의 통합은 지리산 권역 생태환경운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업방향은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북한산 도로” 민간합동기구 설립

불교환경연대 성명, 우회노선 건설 검토하자”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북한산 관동도로 건설을 백지화하고 대안노선을 검토할 민간합동 공동대책기구의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불교환경연대는 "정부의 계획대로 2020년까지 16개 고속도로, 30개 댐이 건설되면 우

리나라의 자연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 국립공원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불교환경연대는 "현재 진행 중인 북한산 관동도로의 건설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며 "북한산 우회도로 노선을 검토하기 위한 민간합동 공동대책기구 수립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유신 기자

기본교육 실시 사찰 전국분포지도 제작

조계종 포교원은 전국적으로 기본교육에 동참하고 있는 사찰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신도기본교육 실시 사찰 전국지도'를 제작한다.

포교원은 지난해 신도기본교육령이 발효된 이후 신도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찰을 이달 27일까지 취합해 7월 5일까지 전국지도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포교원은 신도교육 실행 지침서를 전국 사찰에 발송하는 한편 신도교육 현황 양식서를 포교원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02)720-7060 김재경 기자

장기이식 국가관리후 급감

지난해 3건 불과, 승인 절차 복잡해 기피

지난 2000년 2월부터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가 뇌사자 장기이식을 전담하면서 장기이식 건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 장기이식재단인 생명나눔실천회의 장기이식 건수도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집) 자료에 따르면 각각 신장·심장·간장 이식 사례의 경우 97년 15건, 98년 24건, 99년 21건에서 KONOS가 발족한 2000년에는 5건, 2001년에는 3건으로 크게 줄었으며, 올해 5월까지의 이식 건수도 단 2건에 불과했다. KONOS는 뇌사자 장기이식이 99년 162명에서 지난해 52명으로 감소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이유는 과거 병원과 생명나눔 측이 협의에 이르지 못한 장기이식이 KONOS의 승인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기증자와 기증자를 발굴한 단계가 큰 불편을 겪게 되면서 기증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장기 기증자를 발굴한 의료기관이 이식 대상자를 자체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장기이식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뇌사자의 기증 장기는 KONOS에서 관리해 이곳에서 순서대기 중인 환자에게 돌아갔다.

생명나눔실천회 손양호 이사는 "서류상의 기증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기증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법률을 개정하는 등의 개선책이 있어야만 장기기증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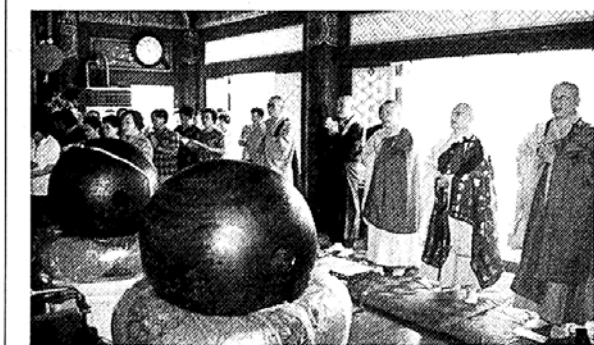
한명우 기자

경주방문 외국인 대상

달빛 신라역사 기행

차·떡 먹으며 국악감상도

한일월드컵 축구대회에 맞춰 경주지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원주 관음사는 6일 초대형 108염주 이운법회를 봉행했다.

남북통일기원 초대형 108염주 이운 치악산 관음사 8월11일 봉안법회

남북통일의 서원을 담은 초대형 108염주(한일 지름 40cm, 총무게 367호 22면 기사침조) 석호(관음사 조실, 무에일본 통

'신라의 달밤'을 맛보게 하는 이색 행사가 열린다.

경상북도 관광협회는 신라문화원 주관으로 오는 22일 오후 7시 경주시내 황룡사지 등 일원에서 '월드컵과 함께 하는 달빛 신라역사기행'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월드컵대회 기간에 경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등에게 문화유적을 소개하고,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코스는 경주의 대표적 유적인 안압지와 분황사, 황룡사지 등으로 황룡사지에서는 차와 떡

국사 주지, 정문(일본 기후정 호라도 보은각 주지), 백운(태고종 강원지무원장) 스님, 염주 제작자 임관지(한국명 임종규) 거사 등 200여 명이 모인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봉송, 인사, 축사 순으로 이어졌다.

정오스님은 법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통일염주의 봉안을 통해 흠뻑 젖어 있는 민족의 마음이 염주와 같이 하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초대형 통일염주는 총 세벌이 제작돼 지난해 일본 통국사에 한 벌이 봉안됐고, 두 벌은 관음사로 이운돼 한 벌은 관음사에, 나머지 한 벌은 북한 묘향산 보현사에 봉안할 계획이다. 관음사 봉안법회는 8월 11일 열리고 이날 북한으로의 이운 계획이 발표된다.

원주=남동우 기자

“조계사, 각황·태고사 역사성 승계 단위사찰보다 종단대표로 봐야”

김광식씨 포럼서 주장

조계사가 '한국불교사 속의 조계사'를 주제로 4일 경내 소설법전에서 열려 두 번째 '조계사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과 송인호 서울시립대 교수, 김욱철 안그라픽스 대표, 노승대 북촌문화센터 소장 등 포럼 전문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광식씨(대각사상연구원)는 "조계사라는 명칭은 1910년 창건된 각황사가 태고사, 태고사에서 조계사로 변화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조계사가 갖는 역사성은 조계사의 전신인 각황사와 태고사의 역사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각황사는 불교대중회의 최일선에 있었고, 태고사는 불교계 흥분사였다"며 "이같은 상황으

로 볼 때 조계사는 일개 단위 사찰로서의 성격보다는 정치성, 종단성, 한국불교 상징성, 조계종단 대표성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조계사 자체 내의 움직임과 흐름은 다각적인 관점에서 정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명우 기자

가정폭력 전문상담

여불련, 교육생 모집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가 제3기 가정폭력 전문상담가 교육생을 28일까지 모집한다.

자원봉사희망자와 가정폭력 상담원 및 1366 상담요원 희망자, 가정폭력 상담소 설치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은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총 100시간동안 이루어진다.

여수령 기자

"집안의 어느장소이든 펼쳐만 놓으시면 그앞이 법력(法力)과 법기(法氣)로 충만한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되는....."

관음(觀音)병풍 과 불탑(佛塔)다라니병풍

관음 병풍

불탑다라니병풍

특징

- 집안내의 어느 장소이든 구애 받음이 없이 펼쳐 놓을 수 있으며, 어느공간이든 본 병풍을 펼쳐 놓으면, 그곳이 법력과 법기로 가득찬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됩니다.
- 병풍은 전체가 모두 두꺼운 무늬목목재로 되어 있어 변형되지 않고, 영구적이며, 백의관세음 보살님은 황동판 위에 모시어 훼손 될 염려가 전혀 없으며, 불탑다라니와 관세음보살 보문품경은 황동 판위에 양각으로 새겨서 금도금을 한후 표면에 특수코팅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때가 묻거나 변색되지 않으며 먼지 등이 묻었을 때에는 고운 용걸레로 닦으시면 됩니다.
- 불자 집안의 가보로서 대대손손 물려주실수 있는 성품(聖品)입니다
- 카드로그를 보실때마다 본 병풍을 직접보신 불자들이들은 모든분이 한결같이 환희심을 내시어 집안에 모셔가겠다고 마음을 내실 정도의 성품이므로 본회에서라도 직접보여드릴방법을 강구하고 있어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음병풍과 불탑다라니 병풍은 그효험이 똑같이 나타내기 때문에 인연따라 마음에 맞는 한 병풍만 택하시면 됩니다.
- 현재 큰스님에게 펼쳐놓으시도록 시주하시는 신도분들도 계시고 본인의 집과 분기한 자녀들의 집에 헌공씩 놔주시는 불자님도 계십니다.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중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중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내용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중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상의 상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중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력중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계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에는 왜 명당이여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예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내용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어날 때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천축, 연축 인제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생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 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